

고창군, 소상공인 자금융통 돕는다

5000만원 융자시 연 3% 이하
3000만원 빌릴 땐 5% 지원
신용보증 위한 특례보증 지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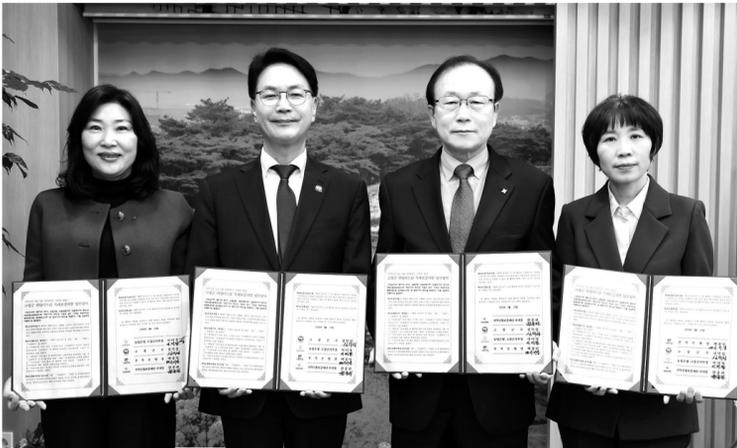
고창군이 올해부터 소상공인 융자지원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돕는다.

고창군은 최근 심덕섭 군수와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중관 이사장,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NH농협은행 이마경 고창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협약이 있기 전까지 소상공인융자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까지 대출시 5%의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 이 또한 도내 시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자율 지원사업이다.

이에 더해 이번 협약으로 올해부터 5000만원까지 융자시 3%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소기업·소상공인(희망더덕) 융자지원 사업'을 추가해 시행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융자한도 5000만원에 3% 이자지원과 융자한도 3000만원에 5% 이자지원 중 필요자금의 규모에 따라 선택 신청할 수



심덕섭(왼쪽 두번째) 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7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있게 됐다.

군은 이차보전금(이자)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전북신보와 함께 신용보증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창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융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돼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1기업 1공무원' 친기업 환경 조성

161개 업체-팀장급 공무원 매칭...애로 해결·인력 수급 호평

민선 8기 고창군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지역 업체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지난 해 7월 시행 이후 161개 업체와 팀장급 담당공무원이 매칭돼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군 팀장들은 담당 기업들의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듣고 출장 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수도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업체를 찾았던 팀장은 관련 사진을 첨부해 담당부서의 즉각적인 조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 인력수급이 시급한 기업들을 정리해 로컬잡센터와 연계한 일자리페스티벌을 열고 현장 채용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했다.

전담공무원제는 기업이 처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공무원 500명과 기업의 1대 1매칭, 1주1콜(call), 한달 1회 방문제'를 시행하면서 친기업적 환경조성에 나서고 있다.

고창군도 올해 '1기업 1공무원제'를 기존 분기 1차례 면담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기업의 고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이에 발맞춰 1기업-1공무원 전담제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내 기업들이 촘촘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마스코트 '카톡 이모티콘' 받으세요

선착순 2만5000명 한달간 사용

남원시가 '향'이 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한다.

남원시 관광브랜드 '플레이남원'의 마스코트 '향'이 이모티콘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표현까지 가능한 움직이는 모션 16종으로 구성됐다.

이모티콘은 선착순 2만5000명에게 무료 배포되며, 사용기간은 다운로드 후 30일간이다.

기존 '플레이남원' 카카오톡 채널이 추가가 돼 있는 사용자는 카카오톡 알림이 오면 바로 다운로드

를 받을 수 있고 친구추가가 돼있지 않은 사용자는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플레이남원'을 입력해 채널을 추가하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마친 '향'이 '몸'이 캐릭터는 남원고을의 춘향과 몽룡을 따라 다니는 고양이 '향'과 강아지 '몸'를 감성적이고 귀여운 이미지로 표현한 캐릭터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귀여운 캐릭터 이모티콘을 통해 스마트관광도시 남원이 젊은 세대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관광객이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

정읍시 다음달 5일까지...개인·단체 총 2000만원 상금

정읍시가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5월 11일)를 맞아 동학농민혁명 계승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동학농민혁명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연구·문화 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상한다.

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관·단체장, 전국 각 지자체장·학교장, 관내 실과소장·읍면동장, 사학자 등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국민(단체)이라면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20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상패를 준다.

후보자 접수는 4월 5일까지 동학문화재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지난 해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세계 역사로 인정받아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자유, 평등, 인권의 대화합 장을 만들어 가는 단체나 개인을 수상자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생산부터 소비까지 저탄소 식생활 확대"

남원시-aT 국내 유통 활성화·수출 확대 모색 업무협약

남원시가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와 최근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등 저탄소 식생활 확대 및 저탄소 농업을 통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으로 국내 유통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모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시와 aT는 ▲저탄소·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 및 식생활 개선 캠페인 동참을 통한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실천 ▲남원 농산물 수출 확대 및 산업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정보 교류 ▲농수산물 식품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협약을 통해 남원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역 농식품을 이용한 식단 구성으로 로컬푸드 활성화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확대, 온라인 유통 등은 물론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농축특산물 수출확대, 친환경에너지 사용, 식품 폐기물 최소화 등에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T 김준진 사장은 "남원시의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원시 농수산물 산업발전에 aT가 협력해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경찰서, 신축 청사서 업무 시작

정읍경찰서가 청사 신축공사를 끝내고 지난 25일부터 정읍 농소동에 신축한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철저한 보안대책과 이전계획을 세워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각종 경찰장비와 업무 관련 서류 등 이사를 마치고 신청사에서 새롭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정읍시 농소동 정읍경찰서 신청사는 민원 편의를 위해 개방형 민원인 주차장을 별도 설치하는 등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됐다.

김한근 정읍경찰서장은 "청사 이전으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치안 서비스를



를 제공하는 믿음직한 정읍경찰이 되자"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김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